

항상 주는 생활을 해야 기쁜 마음 생겨

조상들의 영들은 후손의 몸속에 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간다고 말할까요? 영혼이 좋은 데 가라고 종교의식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전부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죽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곧 피라고 성경에도 써있고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피를 많이 흘리면 죽어요, 살아요? 생명이 다 쏠아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피를 많이 쏠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피 자체가 생명이예요. 피 자체가 마음이죠? 피 작용이 마음작용이죠? A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꼼꼼하죠? 또 B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사교적이죠? 또 AB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조금 이랬다 저랬다 하죠? 변덕이 좀 있죠? 그러나 O형의 피를 가진 사람의 성격은 고집이 세고 과격하죠? 그게 피 자체가 마음이라는 증거예요.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죽여

그렇기 때문에 잠서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런 말 씬이 있죠? 생명이 마음속에 있다는 이 소리예요. 양심 자체가 생명이예요. 양심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 자체가 사람의 영이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피로써 양심을 이루고 있는고로 그렇고로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되어 있어요. 양심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바로 그 양심의 영이 사람의 영이고로 그렇고로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을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죽이는고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영이 떠나간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영이 떠나가는 게 아니예요.

죽은 사람의 영이 자식 속에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에 그 자식이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만에 사람이 구성되어 가지고 나오죠? 그때 어머니의 피와 아버지의 피가 같이 합쳐서 그 자식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피로 만들어지는고로 부모님의 영이 자식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영이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손 치더라도 부모님의 영이 자식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영이 손자 속에 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치가 맞게 말을 해야 이게 학문이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요, 이것이 참 학문인 거예요.

무문대소하고 죽은 사람들의 영들이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있는 사람이 전부 영생을 얻으면 조상 대대로 영이 영생을 얻는 바람에 죽은 사람들의 영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리제단에 나오는 건 효자 중에 효자 노릇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조상님의 영들이 여러분들이 승리제단 열심히 나와서 바로 하나님 피기를 학습고대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무장해야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슨 무장을 해야 하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한테 감사! 내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사를 안 하면 되겠어



구세주 조희성님

요? 지가 잘 나서 살고 있는 줄 알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어도 감사! 항상 밥을 먹어도 감사! 드러누워 잘 때에도 감사. 목욕을 할 때에도 감사. 형제를 만나도 감사, 누구든지 만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야 되어요. 아시겠어요?

이러한 감사한 생활을 하면 마귀가 침투해 들어올 구멍이 없어, 왜 그러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마음이 항상 기쁩니까, 슬플까? 기쁘죠? 마음이 항상 벅벅벅 벅은 마음 상태에 있는고로 그렇고로 웃으면 피가 맑아지고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서 병균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병이 없어져요. 웃는 사람 죽지 않아. 웃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웃는 마음이 바로 이제 마귀가 침투해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철통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항상 감사를 해야 웃어지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웃음이 안 나. 그래 안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굳어지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웃게 되어 있어요. 항상 벅벅벅 웃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전도해야 감사가 나가

그러니까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

겠죠? 감사한 생활을 하러니까 매일 전도를 해야 되어요. 매일 전도하게 되면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아지니까 감사가 절로 나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전도하는 사람 항상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어요. 웃음꽃이 피어 있는고로 그렇고로 항상 웃으려면 전도를 해야 되어요. 전도를 해야 감사가 나오고 이제 전도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죠? 내가 전도를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를 해주셔서 전도가 되는고로 그렇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감사를 해야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줄까, 감사 안하는 사람한테 복을 줄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죠?

진리를 주는 생활 전도

전도하는 자체가 바로 주는 생활이야. 빼앗는 생활이야? 진리를 주는 생활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 닮는 생활이예요. 하나님은 항상 희생적인 하나님의 신인고로 항상 주기를 좋아해요. 그게 하나님의 신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인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던져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상 받을 짓이요, 이제 그와 같이 주는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로 나오므로 그렇고로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우니까 병마가 들어올 틈이 없고 또 어떤 실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걱정, 근심이 있거나 또한 이제 그 마음이 우울한 상태에 있으면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고, 범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면 피가 썩는고로 피가 썩어서 죽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피가 썩어요. 마귀의 피가 썩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피가 썩으면 생명력이 약화돼

생명의 피가 썩으면 사람의 생명력도 점점 생명력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항력이 약해진다든 게 바로 생명력이 약해진다든 거예요. 생명력이 강해지면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야 생명력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려면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생활을 해야 되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예요. 도는 게 뭐 앞에서 기도하는 게 무릎 꿇고 뭐 기도하는 게 도는 게 아니예요.

도는 것은 바로 그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게 도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되려면 바로 항상 감사하고 항상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 그런 사람은 항상 누구를 보든지 내 상전으로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항상 내가 내 자신이 맨피리 밑바닥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상대방을 항상 꼭대기 위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존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2001년 2월 7일 말씀 중에서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원리를 통한 심령현상의 새로운 해석

우리는 앞에서 다양한 심령현상과 초능력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결론적으로 심령현상과 초능력을 설명한답시고 영통하게도 육체와 이 세계를 도의시키고 영혼과 내세를 끌어들이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인간이란 존재가 기준에 앞선 것과 달리 상상의로 신비로운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없었다 싶다.

요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가상현실, 심리학의 눈부신 발달로 인간을 단순히 물질 혹은 육체적 존재로만 국한된 실체로 보지 않는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그야말로 과학의 영역에서조차 인간을 영적이고 신적인 존재로까지 격상시켜 놓고 보는 정신의 최첨단의 시대가 조금씩 펼쳐지고 있다. 조만간 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역사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자각하는 모든 것이 신의 역사임을 선명하게 알게 될 날이 멀지 않겠다.

이번에 다뤘던 심령현상과 초능력 현상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쩌다가 특별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바로 우리 속에 이미 내재된 신성(神性)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잠재의식 잠재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잠재의식은 하나같이 흑암의 동굴 같은 '나'라는 현재 의식이 잠깐 제거된 상태에서 순간 행해진다든 것을 역설하고자 한다. 놀라운 것은 죄와 번뇌와 구속과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하나같이 모든 종교는 '나'를 제거하는 데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심령현상과 초능력을 일으켰던 '나'의 제거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나'의 제거가 이루어졌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그것은 '뒤틀린 초능력'과 '올바른 초능력'이다.

뒤틀린 초능력

대다수 심령술사나 초능력자들은 '뒤틀린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율적으로 개발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 갑작스런 계기로 인하여 초능력을 갖게 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나서, 우연히 벼락을 맞고 나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어 초능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흔히 있다. 바로 이러한 기회로 '나'라는 어둠의 장

마음과 몸(영·육) 분리될 수 없는 하나(과학적규명4)

심령현상과 초능력,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

막이 견혀 잠재된 신성(神性)과 신통력이 발휘된 것이다.

과거 덴마크의 저명한 영매인 피터 하코스는 본시 페인트공이었는데, 작업 중 높은 곳에서 떨어져 기절했다가 정신이 돌아온 뒤로는 모르는 것이 없게 되었다고 한다. 러시아 최고의 초능력자 볼프페밍은 원래는 바르샤바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부터 달을 보면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루머티즘 증상을 보였다. 그런 증상을 겪고 난 후 그것과 관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나 초능력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다 베를린으로 가게 되어, 베를린 정신병 전문의 아벨 교수를 만나 교수에게 초능력을 시범보였다. 그때 당시 그가 여러 실험을 통해 텔레파시 독심술 심리조정 능력 등 놀라운 초능력이 있고, 원하면 바로 트랜스상태로 들어가 과거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언 능력까지도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뒤 우여곡절 끝에 모스크바로 이송돼 스탈린을 만난 그는 스탈린이 의심하며 진짜 초능력이 있으면 모스크바 중앙은행을 털어 10만 루블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자 비밀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스크바 은행을 찾아가 은행원에

게 백지를 보여주며 큰 가방을 넘겨줬다. 그러면서 은행원에게 10만 루블을 가방에 담으라는 텔레파시를 보내 가방에 10만 루블을 가지고 은행에서 나오는데 성공한 그는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스탈린을 놀라게 했다. 볼프페밍은 스탈린에게 독일과 대전쟁이 발발할 것이며 독일이 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볼프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했다. 매싱의 능력을 인정받은 비밀 경찰 국장 라브렌티는 그를 시베리아로 보내 그곳에서 첩보학교에서 비밀경찰 요원들에게 텔레파시를 교육시키도록 했는데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텔레파시는 선천적인 능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비밀경찰국에서 원거리 투사와 예언, 그리고 범죄해결과 수행했다고 한다.

또 다른 초능력으로 영매나 무당을 들 수 있다. 신내림은 한자로 빙의(憑依)·점신(接神)·강신(降神)·망아(忘我)로 표현된다. 신내림 상태가 되면 신이 무당의 몸에 내려와서 의식(意識)을 지배하게 되는데, 탈혼(脫魂)처럼 무당의 혼이 몸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내려서 자의식을 잃거나 의식이 변하게 된다.

태생적으로 영매나 무당은 집안 내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현재의 의식을 제거하고 쉽게 잠재의식이나 특별한 장소에 머문 영을 불러들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임신상태, 혹은 최면상태에 들어가기 위한 신내림의 노력을 해서 초능력을 발휘한다.

올바른 초능력

이것은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그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선(禪) 선도(仙道) 단전호흡 명상 등의 수련행위는 바로 올바른 초능력의 개발 접근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수행 방법들은 산만한 현재의식을 가라앉히고, 인위적인 정신통일을 통해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적인 수행은 비록 초능력의 터득 과정은 느릴지언정 한번 터득한 초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뒤틀린 초능력과는 달리 언제든지 정신만 집중하면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인류의 총체적 난국 타개의 지름길은 물질에너지 개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잠재력 개발로 급진회개야 한다. 지금은 바야흐로 인간 외부에서 또는 물질문명의 발전으로 인간

의 행복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한계상황에 다다랐다. 오히려 인간성은 날로 황폐해져 인간의 존엄성을 잃었고, 물질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무차별적 개발은 지구생태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편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룩한 모든 인공적인 문명과 문화는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기는커녕 인간을 더욱더 비정한 인간과 세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세계만의 발전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이미 우리 속에 내재된 무한한 에너지 보고와 전기전동성에 더 큰 관심과 개발에 눈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능력, 자동차를 타지 않아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예지능력 등 가히 신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초능력을 인간 자신 속에서 개발해 낸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러려면 여기에 실린 '피의 원리'를 완전 마스터하면 자신을 개발하는 수행의 완벽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김주호 기자